

The Mæssage

(“The Message” by Eugene Peterson 의 허계영 번역 version)

학개



출처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그림은 AI가 그린 그림입니다.

1 장

자기 집 돌보는 데만 급급한 너희

¹ [해설] 바사(페르시아) 왕 다리오의 통치 제 2 년 6 월 1 일에 선지자 학개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(스알디엘의 아들)과 대제사장 여호수아(여호사닥의 아들)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.

² [학개]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오.

[하나님] 백성들이 미적미적 꾸물대며 뭐라는 줄 아니?

(백성들)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... 그닥 좋은 때가 아니야.

³⁻⁴ [해설] 그리고 얼마 안 되어,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다시 말씀하신 걸 학개가 전했어요.

[하나님] 나 하나님의 성전, 내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, 너희는 근사한 새 집에서 살면서,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?

(백성들) 지금은... ‘그닥 좋은 때’가 아니야.

⁵⁻⁶ [해설]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,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.

[하나님] 너희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거라.

곰곰이 생각해 보거라.

너희가 여기저기 돈은 많이 쓴다만,

딱히 보여 줄 건 없지?

밥을 계속 먹어도

전혀 배부르지가 않지?

마시고, 마시고, 또 마셔도

갈증이 전혀 가시질 않지?

옷을 겹겹이 껴 입어도

여전히 따뜻하지 않지?

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

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?

너희 삶이... 밀 빠진 독 같구나.

너희가...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구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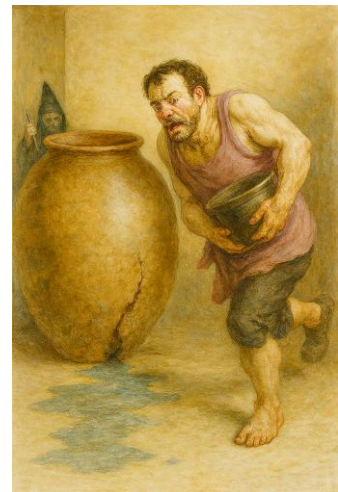
⁷ [스바냐] 그래서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오.

[하나님] 너희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거라.

곰곰이 생각해 보거라.

* * *

⁸⁻⁹ [스바냐] 그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소.



[하나님] 자,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말해 주마.

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오거라.

베어온 목재로 성전을 다시 짓거라.

오직 날 위해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니? 날 공경하는 마음으로…?

지금껏 너희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아왔지.

하지만 결과가 뭐지?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?

내 성전에 예물이랍시고 가져온 그 피죄죄한 것들…,

내가 획~ 다 날려 버렸다. 고작 그딴 걸로 뭘 하겠어?

⁹⁻¹¹ 너희는 이에 ‘아니, 왜요?’라고 묻고 싶겠지(기억하거라. 이는 나,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란다). 내 집이 이렇게 무너져 방치돼 있는데도, 너희는 그저 자기 집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잖니? 그게 이유야. 너희의 인색함! 그래서 내가 여름철 동안 가뭄을 내려, 작물이 자리지 않게 한 거야. 너희의 그런 인색함, 발발 떠는 손 때문에, 내가 가뭄을 내려, 들판이며 언덕이며 다 마르게 한 거라고! 논밭이랑 과수원도 시들게 만들고, 채소랑 과일도 안 자라게 한 거라고! 앞으로도 사람이든, 가축이든, 농작물이든, 뭐 하나 번성치 못 할 게다!

* * 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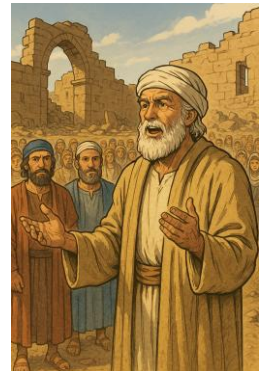
¹² [해설] 그러자 총독 스룹바벨(스알디엘의 아들)과 대제사장 여호수아(여호사닥의 아들)와 온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. 진심으로 경청했지요.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, 그들이 귀를 기울인 거예요.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학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.

¹³ 하나님의 ‘메신저’ 학개가 하나님의 ‘메시지’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.

[학개]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

[하나님] 내가 너희와 함께한단다!

¹⁴⁻¹⁵ [해설]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,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움직이게 하셨어요.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때는 다리오 왕 제 2 년 6 월 24 일이었죠. (일 착수까지 23 일이 걸림^^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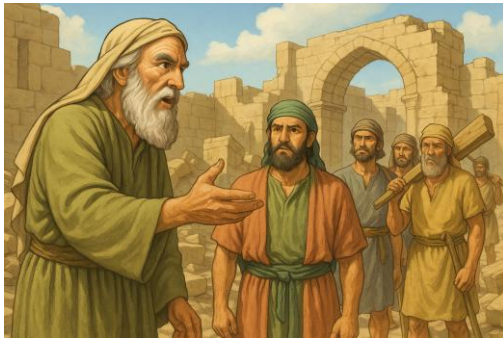
2 장

이 성전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을 거란다.

¹⁻³ [해설] 7 월 21 일,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어요.

[하나님] 총독 스룹바벨(스알디엘의 아들)과 대제사장 여호수아(여호사닥의 아들)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거라.

여기 혹시 예전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니? 원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잘 알지? 그런데 지금은 어때? 초라하기 그지없지?



4-5 [학개]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.

[하나님] 그러니 일을 시작하거라, 스룹바벨아, 대제사장 여호수아(여호사닥의 아들)야! 일에 착수하거라! 너희 모든 백성들아, 부지런히 일하거라!

[학개] 하나님의 말씀이랴오.

[하나님] 그래, 일하자꾸나! 내가 너희와 함께해 주마.

[학개]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!

[하나님]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, 내가 너희랑 맺은 언약 기억하지? 그걸 실행해 보자꾸나.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 숨 쉬고 있단다. 그러니 겁낼 것 없어, 주눅들 필요 없다고! (졸지 마^^)

6-7 [학개]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랴오.

[하나님] 조만간 너희 모르게 내가 하늘과 땅, 바다와 들판을 진동시킬 거란다.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흔들어 무너뜨릴 거란다. 그들이 보물을 트럭으로 가져올 거란다.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영광으로 채울 거란다.

[학개]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.

8 [하나님] 은도 내 거,
금도 내 거란다.

[학개]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랴오.

9 [하나님] 이 성전은 옛 성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될 거야. 옛 성전도 영광스러웠지만, 이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마무리될 거야. 왜냐고? 내가 이곳에 온전함과 거룩함을 내려 줄 거거든.

[학개]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오.

* * *

10-12 [해설] 9 월 24 일(다리오 왕 제 2 년-성전재건 시작 후 3 개월 경과),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게 임했어요.

[학개]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.

[하나님] 제사장들에게 전하거라.

만일 어떤 사람이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따로 구별한, 거룩한 고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중,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그릇, 포도주병이나 기름병, 혹은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, 이 음식들이 그 거룩한 고기로 인해 거룩해진다든?

[제사장들] 아니요.

13 [해설] 학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.

[하나님] 그럼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? 시체를 만진 후, 음식을 만지면 음식 역시 부정해지지?

[제사장들] 네, 당연히 음식도 부정해지죠.

¹⁴ [해설] 학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.

[하나님] 그래서 이 백성도 부정해진 거야. 나라가 부정해졌으니, 모든 게 부정해진 거란 말이지. 백성이 날 위한답시고 하는 일들? 그것도 다 부정하다고!

¹⁵⁻¹⁷ 돌이켜 생각해 보거라. 너희가 내 성전의 첫 기초석을 놓기 전에, 너희 상태가 어땠는지... 나 하나님의 성전재건 작업을, 마지못해, 질질 끌며, 미적미적, 영혼 없이 하지 않았니? 그래서 농작물도 절반밖에 거두지 못했던 거야. 곡식도 절반, 포도주도 반밖에 안 나왔지?

그거, 내가 가뭄이랑 전염병이랑 우박으로 너희를 쳐서 그랬던 거야. 그래서 너희가 되는 일이 없었던 거라고. 그런데도 너희는 꿈쩍도 았더구나. 계속해서 날 무시했지.



[학개] 하나님의 선포라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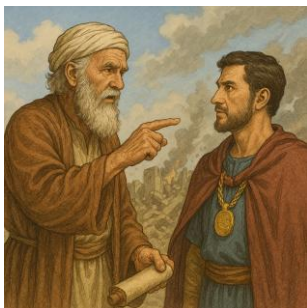
¹⁸⁻¹⁹ [하나님] 하지만, 오늘, 9 월 24 일부터는 달라질 거란다. 바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이 날부터는 달라질 거야. (알고 보니 이제야 공사 착수, 무려 3 개월 23 일이 걸림^^) 그동안은 밭의 포도나무, 무화과나무, 석류나무,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잘 못 맺었었지?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거야. 믿어도 돼!

* * *

²⁰⁻²¹ [해설] 9 월 24 일,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이 날,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학개에게 임했어요.

[하나님]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거라.

²¹⁻²³ 내가 세상을 뒤흔들 거란다. 모든 걸 뒤엎을 거란다. 그래서 완전히 다 새로 시작할 거란다.



정부를 무너뜨리고, 외세를 멸하고, 무기와 무장세력을 해체하고, 그들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지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거란다.

그리고 너, 스룹바벨(스알디엘의 아들)아! 그날이 되면, 내가 널 친히 내 비서실장으로 삼을 거란다. 내가 널 나의 인장반지-나의 주권적 임재와 권세의 표징-로 삼을 거란다. 내가 이 모든 걸 생각하고, 이 일을 위해 널 택한 거란다.

[학개]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.